

태평양전쟁 하의 조선여성들의 삶: 분열과 대립

송연옥*

국문요약

태평양전쟁기, 남성지식인들이 전시총동원체제 아래서 전향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것은 내선일체를 재해석해 조선인의 지위향상을 실현하고 민족차별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지식인들은 남성 지식인과는 다른 논리로 전쟁을 지지했다. 즉 일제가 국력을 더욱 높이면 근대가족이 실현되리라 믿고, 근대가정학의 계몽에서 출발하여 국가와 시대의 요청에 맞는 현명한 주부, 가정의 책임주체가 됨으로써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국민(황국신민)이 되려고 했다. 전시에 생활개선이나 검소·절제를 호소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주장하는 여성지식인들의 활동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친일적 여성단체에서 전개되고 있었으나, 총독부의 과장된 선전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을 포섭하고 운동의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일반 조선여성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개인의 이름이나 경력이 가시화되는 지식인 여성에 비하면, 민중 여성들은 개인의 단편적인 모습이 가시화될 때가 있어도 대부분은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속에 묻혔고 이해관계도 같이 하고 있었다. 개선이나 절약 이전에 생명 유지조차 위협당하던 식민지 현실에서, 민중 여성들과 지식인 여성 사이에는 전쟁에 대한 평가에도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으며, 젠더·내셔널리즘의 양면에서도 분열과 대립이 시작되었다.

주제어: 근대가족이데올로기, 침략전쟁협력, 행위주체성, 근대여성교육, 민족·젠더·계급의 괴리

*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명예교수, 도쿄 문화센터·아리랑 관장. younoksong@gmail.com

I. 들어가며¹⁾

1910년부터 식민지정책을 추진해온 일제는 1932년 ‘만주건국’ 선언 이후, 사상계, 문학계의 언론통제를 일본 국내보다 조선에서 먼저 실행했다. 1937년 중일전면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더 강화되었다.

1938년,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고 조선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1940년에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이 결성되어 말단에서는 모든 조선인에게 애국반을 조직하게 한 한편, 지원병제도, 노무징용령,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전쟁의 병참기지로서 조선을 더 중요시함과 동시에 조선인을 황민화할 정책이 긴급과제로 부상하고, ‘내선일체’란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었다. 징병제의 전제가 될 근대가족으로 개편하기 위해 1940년에 창씨개명을 실시하고 1942년에는 징병제를 정비했다.

‘총동원체제’에서 일제는 미개척 분야인 여성계 자원의 활용에 착목하게 되고, 특히 여성에게 남성노동력의 보충역, 남성 동원을 위한 모성의 제공(「銃後の母」)과 노동자나 병사의 재생산(출산·육아) 등을 기대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부터 시작된 태평양전쟁 이후 조선인에 대한 압박과 착취는 더 심해졌는데, 점점 험악해진 시대에 조선 여성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리고 목숨을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있으나 총체적인 실상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식인 여성에 한해서 말한다면, 남겨진 역사 자료에서는 조선 여성들이 일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침략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몰래 반발했던 여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낮은 목소리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의 연구 현황이다.

과연 일제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느 정도 조선인의 황민화가 실현되었는지, 성별, 지방별, 계층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 속에서 실태를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항대립적인 해석을 넘어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1) 필자의 완벽하지 못한 한국어를 수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太平洋戦争下の女性動員-愛国班を中心に”(樋口雄一 1994), “朝鮮金融組合婦人会について”(河かおる 2003), “전시체제와 가정성: 가정생활과 주부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1937-45)”(안태운 2004), “일제말 전시체제기 여성에 대한 복장통제: 몸매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안태운 2007), “植民地期朝鮮の「国語普及運動」の展開と朝鮮女性の対応”(崔真善 2013) 등이 있으며, 일제와 말단권력기구와 민중의 관계를 살핀 것으로 “戦時末期 朝鮮邑面の機能と朝鮮人民衆との乖離について”(樋口雄一 2013)가 있다. 또 식민지 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유언비어에서 분석한 연구로 “戦時期 朝鮮における「慰安婦」動員の「流言」「造言」をめぐる”(藤永壮 2013)와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변은진 2013) 등이 있다.

통제경제정책과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総力戦期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経済統制法令の整備と経済〈犯罪〉”(松田利彦 2002), “일제말(1937-1945)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송규진 2011),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매일신보〉의 물자통제경제정책 위반사례 기사를 중심으로”(송규진 2012) 등이 있다.

또 독립운동과 여성해방에 노력해온 여성, 예를 들면 박인덕 같은 사람이 전시하에서 친일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읽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新女性朴仁徳における〈近代〉〈民族〉〈ジェンダー〉〈親日〉”(井上和枝 2013), “일제 식민지시기 황신덕의 현실인식과 운동노선의 변화양상”(김성은 2015) 등을 들 수 있다.

Ⅱ. 총동원체제기의 지식인 여성들

1. 지식인 남성들의 주체 세우기와 자기 분열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의 연구에서 소개했듯이, 박인덕처럼 일제에 대해 독립운동을 해온 여성들이 1940년대에 전향해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이 난문 앞에서 고민하게 하는 것은 지식인 여성들만이 아니라 지식인 남성들의 세계는 더 심각했다는 사실이다.

방기중의 일련의 연구도 이 난문에 해답을 찾고자 한 고민의 궤적이다.

전시파시즘기 한국 지식인은 ‘내선일체’의 억압구조에서 민족적·이념적 자기 정체성을 해체당하며 깊은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다. 일부 지식인은 민족해방의 도래를 전망하며 항일운동을 지속해 나갔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다수 지식인은 전향과 ‘황민화’를 강요당하는 가운데 정책협조의 체제순응, 절필과 은둔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또 처세와 출세를 위해 기꺼이 ‘皇國臣民’이 되었고, ‘內鮮一體運動’에 앞장서서 전시총동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 시기 이러한 지식인의 정치적 동향, 그 내면의 인식논리와 의식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한국근현대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파시즘체제와 결합된 ‘식민지 근대’의 사상성을 해명하고 해방후 분단 형성과 현대 한국사회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식민지 유산’의 지적·사상적 실체를 밝히는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방기중 2005, 서문).

전향한 조선인 지식인들은 ‘내선일체’를 재해석해 조선인의 지위 향상을 실현할 기회, 민족 차별 탈출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모색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인정식(印貞植)과 김명식(金明植), 현영섭(玄永燮)을 들 수 있으나, 인정식과 김명식이 ‘협화적인 내선일체론’을 주장한 반면 현영섭은 ‘철저일체론’을 주장하고 조선어도 없애는 등 완전한 동화를 지향했다(洪宗郁 2011).

인정식은 전시변혁을 기대하고 제국질서 안에서 조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주제를 온존하게 한 총독부의 농업정책을 보고 그 기대가 좌절되고 만다. 하여간 이 시기에 조선 남성들은 굴욕적인 시대상황에서 주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상계를 헤맸으나, 한편 여성들이 전쟁협력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남성들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2. 조선 여성들의 전쟁협력

〈표 1〉 전쟁에 협력한 여성들

生年	이름 ²⁾	학력	출신·가족	기타 여성들
1890				劉英俊(?)
1891	俞珪卿(1961) 任淑宰(1960) 豊川淑宰	정신여학교、協和女子專(北京) 숙명、東京女高師	父) 俞星濤 父) 任命鎬 19세때 과부	
1892				金マリア(1944) 黃愛施德(1971)
1896	孫貞圭(1950) 井原圭 朴仁德(1980) 永河仁德	京城女高普、東京女高師 美国留学	父) 昌德宮官吏 平南출신	羅蕙錫(1948) 鄭鍾鳴(?)
1897	洪承源(1952) 車士百(1990) 朴承浩(1978?)	漢城高等女學校(京城女高普) 梨花予科 梨花、東京津田塾英語塾	父)大審院長 남편) 최승만	
1898	黃信德(1983) 朴順天(1983) 張貞心(1947)	崇義女學校、日本女子大學 釜山一新女學校、日本女子大學 호수둔女高普、梨花專保育科	平壤 남편) 卞熙鎔	
1899	金活蘭(1970) 天城活蘭 任永信(1977)	美国留学 紀全女學校、美国留学	仁川	朴元熙(1928) 李賢卿(?)
1901				朱世竹(1953?)
1902	徐恩淑(1977) 徐城恩淑 林孝貞(?)	이화학당 대학교, 미국유학 梨花女高普	仁川 수원 남편 최용환	許貞淑(1991)
1904	李淑鍾(1985) 宮村淑鍾	숙명、東京女高師		朴花城(1988) 崔恩喜(1984)
1905	宋今璇(1987) 福澤玲子	숙명、東京女高師	남편) 박준섭	
1906	裴祥明(1986) 芳村祥明 崔貞熙(1990) 朴마리아(1960)	同德女學校、東京高等技芸 숙명、중앙보육학교 호수둔女高普、梨花專、美国留学	서울 성진 강릉	
1908	趙圻烘	京城女高普、東京女高師		丁七星(1957)
1909	許河伯(?) 金村河伯 毛允淑(1990) 高鳳京(2000)	奈良女高士師 호수둔女高普、梨花專 京城女高普、美国留学	淸津 남편 김복진 원산 남편 안상호 서울, 조부는 영어통역	
1910				朴次貞(1944)
1911				崔承喜(1969)

2) ()안은 사망연도임.

1) 가정학의 (식민지) 근대화에서 전쟁협력으로

-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부로의 변신

1930년대 여성계를 아울렀던 근우회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공적인 무대에서 사라지자, 여성운동에서 중심이 된 것은 주로 기독교 계열의 여성들이었다. 1933년 5월에 개최된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의 강연 내용을 보면 宋今璇、張貞心、林孝貞、徐恩淑이 ‘우리 생활에서 재래식을 개량할 점, 외래식에서 보충할 점’이란 제목으로 실시하고 있다.³⁾ 즉 강연의 취지는 근대 가정학의 계몽이다.

여성계를 이끌게 된 여자기독교청년회는 1938년 6월 세계기독교청년회에서 탈퇴하고 일제의 내선일체 방침을 따라 일본기독교청년회에 가맹하였다(民族政經研究所編 1948). 그 중심에 김활란, 유각경, 박마리아, 최보경이 있었다.

〈그림 1〉『신가정』



〈그림 2〉『경성일보』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⁴⁾



그 1년 전 8월에 설립된 愛國金釵會에 김활란, 손정규, 유각경(『신가정』주필), 황신덕, 조근홍이 간여했다고 하나 실은 조선총독부가 뒤에서 기획한 조직이었다.

3) 『동아일보』 1933년 5월 26일.

4) 『경성일보』 1937년 8월 21일. (기사제목 번역) 충후의 적성이 지나쳐 애국금차회 생기다 - 분기한 반도 상류부인 씩씩하게 안방에서 가두에 진군.

여자기독교청년회가 내선일체를 표방한 1938년 5월 여성단체연합 시국강연이 열렸는데, 그 내용은 ‘시국과 여성의 각오’(유각경, 조선여자기청연합회 총무), ‘총후 여성의 임무’(박봉애, 이화보육교수), ‘비상시국과 가정경제’(황신덕, 동아일보기자), ‘보국과 절제’(장정심, 절제연합회총무), ‘비상시국과 부인보국’(이숙중, 성신여학교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⁵⁾

즉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여성단체가 종로경찰서의 감시하에 전쟁 협력을 호소하는 시국강연을 하게 된다. 내용은 비상시국하에서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두 달 후(1938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가 총독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朝鮮婦人問題研究會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손정규(조선여자교육계의 선각자), 김활란·고황경(미국 유학), 이숙중·송금선·조기홍(일본 유학), 홍승원(深窓에서 자란 家庭婦人) 등 12명에서 15명의 회원을 모았다(綠旗聯盟編 1940, 57). 연구회는 내선일체를 저해(阻害)하는 요인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생활 격차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 계몽 강연을 전개하였다. 강연의 내용은 국방색 개량한복을 입은 조선 여성 강사들이 ‘구체적인 생활개량법’과 ‘전쟁의 옳은 인식’을 계몽하는 것이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도 교육제도 자체에 처음부터 차별이 있었다. 대한제국정부의 소학제도는 교육연한이 5~6년이었는데,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명칭도 보통학교로 변경했다(일본인학교는 소학교, 6년). 조선인의 수학연한으로는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상급학교에 진학이 불가능했다. 조선남성이 다니는 상급학교는 4년(고등보통학교), 여성은 3년(여자고등보통학교)이었다. 조선여성이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수학연한이 부족해 일본에 가서 다시 중등교육을 받아야 했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중등교육은 남자는 5년(중학교), 여자는 4년(고등여학교)이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초등교육의 수학연한을 일본인, 조선인을 형식상 같은 6년제로 했으나, 명칭은 일본인의 경우 소학교, 조선인의 경우 보통학교를 그대로 썼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선인학교 7~8학이 4년제였다. 말하자면 조선남자는 민족차별, 조선여자는 민족차별과 젠더차별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다.

5) “時局講演會集會取締狀況報告.” 『思想に関する情報9 京城鍾路警察第』. 5813의1. 京城地方法院檢事局.

그리고 조선에 거주해도 일본인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인 반면 조선인은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제도 아래 더 높은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나가야 했다.

격차를 없애려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피해당사자의 정신력만 요구했다는 데 일제 여성정책의 허위성이 보인다. 그런데 친일파 여성들은 그런 허위성을 무비판적으로 따름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데 일조했다.

在朝鮮일본인들의 국가주의적 사상단체인 녹기연맹(綠旗聯盟)은 1933년에 재편된 조직이지만 대표인 츠타 가타시(津田剛)는 ‘내선일체의 큰 사업 속에서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김활란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인문제연구회가 녹기연맹부인부와 연계하면서 운동을 추진했다고 한다(綠旗聯盟編 1940, 58). 김활란이 말하는 현실성이 있는 운동은 근우회를 염두에 둔 비판이었다.

일본 침략전쟁의 전황은 진주만 공격 6개월 후 즉 1942년 6월 이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나, 일제는 허위 선전으로 지식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려고 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1941년 9월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평의원: 朴仁德, 李淑鍾, 黃信德, 毛允淑, 崔貞熙, 부원: 金善, 田熙福(京城日報社記者, 田村芙紀子), 林孝貞, 朴奉愛)을 중심으로 계몽 활동이 전개되었다. 추수를 앞둔 9월 15일부터 강연 혹은 좌담회를 위해 조기홍, 이숙중, 손정규, 홍승원, 유각경, 차사백, 임숙재, 송금선이 전국으로 파견된다. 또 전위 여성격려대라는 명칭 아래 이숙중(경기도), 황신덕(충북), 송금선(충남), 이치정(전북), 김귀자(전남), 平康安岐子(경북), 大山盛子(경남), 배상명(황해도), 김활란(평북), 손정규(강원도), 모운숙(함남), 허하백(함북)이 각 도의 주요도시로 파견된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맡은 이치정, 김귀자, 平康安岐子, 大山盛子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외는 모두 서울에서 파견된 여성들이며, 그만큼 지방에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이 강연을 마치자마자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의 강연이 실시되었는데, 임숙재는 황해도와 경기도, 고황경은 충청도, 이숙중은 전라도, 손정규는 경상도, 김활란은 평안도, 홍승원은 함경도로, 6명이 전국 39개 도시로 나누어

파견되었으니 적은 인원수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그해 연말에는 12월 17일부터 6일 간 시국부인대강연회가 학교, 극장, 회관에서 열렸는데, 이때도 김활란, 고헥경, 모운숙, 임숙재, 박인덕, 박마리아, 서은숙, 황신덕, 그리고 신인으로 황초림(1933년 경성여고보 졸업)이 참가했다.

그해 연말부터 신년 초까지 방송을 이용해서 실시된 시국강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전시와 모성의 결의’(박은혜), ‘폐품의 전시동원’(허하백), ‘대전과 일본’(임숙재), ‘생활전에도 이기자’(송금선), ‘전황 뉴스를 듣고’(박순천), ‘가정생활에도 결전체제를 바란다’(임영신). 다만 신문 구독자도 많지 않은 조선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청중을 확보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사실은 특정 계층만이 황민화의 세례를 받은 셈이 된다.

일본군은 1942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국의 식민지인 싱가포르를 함락시켜 ‘승승장구’의 꿈에 취했다. 2월 15일에 경성부민관에서 열린 싱가포르 공략 대강연회에서는 박인덕과 김활란이 각각 ‘동아 여명과 반도 여성’, ‘대동아건설과 우리 준비’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시기에 조선을 대표하던 지식인 여성들은 강연뿐만이 아니라 글로도 그들의 주장을 남기고 있다. 国民精神總動員朝鮮連盟이 낸 기관지 『總動員』(1939-1942)에 게재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표 2〉『總動員』에 실린 조선여성들의 글

이름	제목	권호	출판년월
金活蘭	時局と都会女性	I-1	1939. 6
孫貞圭	非常時局と半島の女性	I-2	1939. 7
趙圻烘	生活改善について	I-3	1939. 8
孫貞圭	婦人教養読本1 家事篇(住居について)	I-6	1939. 11
高鳳京	婦人教養読本2 住宅についての一考察	I-7	1939. 12
高鳳京	婦人教養読本3 奉仕の喜び	II-1	1940. 1
李淑鍾	食糧問題と家庭	II-3	1940. 3
宋今璇	生活改善の實際	II-4	1940. 4
任淑宰	家庭生活を根本的に建て直さう	II-8	1940. 8
田熙福	模範とすべき内地人家庭	II-8	1940. 8
洪承嫻(源)	半島の家庭生活改善に就いて	II-9	1940. 9

6) 『總動員』의 필자는 대체로 일본인들이 많았으나, 미나미지로 조선총독부인 같은 고관 부인도 기고할 경우가 있었다(南總督夫人. “半島の全婦人は戦時国民生活の實踐に乗出ませう.” 『總動員』 2卷9号).

창간호에 실린 김활란의 글은 김활란이 일본어를 못하여 조선어 원문 아래 일본어 번역을 달았으나, 다른 저자의 글은 모두 일본어로 게재되었다. 1권 3호에 실린 조근홍의 글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온 강연이나 좌담회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생활의 개선, 즉 근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승원의 글은 가정을 운용하는 ‘주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중요시하고 있다.

一家庭を主管する主婦の教養と自覺並に勇斷なる実行力が必要である上に、家長及び家族の理解ある援助が必要である。(中略) 現下の如き非常時局に当面している私達國民は従前の如き向上進歩のみを目標とした消極的な改善ではなく、又我が家のみを標準とせず国策に順応する覚悟の下にも精神的にも物質的にも刷新を斷行するのが絶対に必要なことである

일가정을 주관할 주부의 교양과 자각과 용단한 실행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및 가족의 이해와 원조가 필요하다. (중략) 현하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우리국민은 종전과 같은 향상진보만을 목표로 한 소극적인 개선이 아니라 또 우리집만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국책에 순응할 각오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시와 전후에 걸쳐 신중간층의 생활난이 사회문제화해 일본정부는 개개인의 가정생활을 염두에 둔 정책을 실행해야 했다. 처음에는 절약·검약 장려의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과학성·합리성이란 관점에서 생활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구미열강에 대항할 국가건설을 위해 국가의 기초인 가족생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문명화된 가정의 실현을 위해 근대가족상의 계몽을 추진한다.

전근대의 집이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남자가 지배하는 영역이었다면, 근대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정경영자로서의 여성상이 기대되었다. 여성이 가정 내 역할의 책임주체가 됨으로써 남편이나 아들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가와 연결되는 국민이 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정영역의 책임자로서 사회나 정치에 관여하는 새로운 주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小山静子 1999, 261-265).

홍승원의 글은 바로 이런 국가정책과 맞물리는 조선 여성의 임무를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황신덕이 아마카와의 사회주의여성해방론을 조선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일제의 근대가족과 주부의 자기실현 또한 적용이 한정된 일종의 환상이었으나 조선의 엘리트여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림 3〉 『総動員』에 삽입된 만화7)



이런 강연, 좌담, 집필에서 일제의 침략전쟁 선양(宣揚)에 가장 많이 공헌한 여성은 김활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이미 1942년 후반기부터 전황이 악화되었는데 김활란은 일제의 패전 직전까지 전쟁을 지지하고 징병을 권장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런 김활란에 대하여 민족정경연구소 편(1948) 『친일파군상』은 “(김활란)여사는 본의로써 전쟁에 협력할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진위(眞偽)의 여하는 미상하나 당시 왜(일본)경찰의 주목과 엄중한 감시하에 있던 이화여전 교장의 직에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 본의에 없는 출석도 하였고 말도 하였을 듯하나 좌우간 그의 언행이 세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民族政經研究所編 1948).

김활란과 같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지식인 여성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숫자로 따지면 많지 않으나,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행동을 과대평가하는 연설을 대량생산하고 크게 선전했다.

7) 『総動員』 1939년 8월호. 사치를 훈계하고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

‘친일파’ 여성들의 나이는 50대에서 30대, 모두 주소를 서울에 두고 대부분이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특히 임숙재, 홍승원, 손정규, 송금선, 유각경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친 밑에서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이다. 일제 지배하에서도 기득권을 누린 집안 환경은 학력에도 반영되어 임숙재, 손정규, 송금선은 여자교육기관의 최고봉인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출신이다.

그에 비하면 미국에 유학 간 여성들, 김활란, 박마리아, 박인덕, 서은숙, 고헌경, 임영신의 출신계급은 좀더 다양한데, 선교사를 비롯해 주변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거나 미국에서 고학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친일행위를 했다고 하나 제각기 온도차가 있어 홍승원처럼 어른들에게 종순한 현모양처형도 있는가 하면 유각경처럼 막바지에는 전쟁협력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사람(民族政經研究所編 1948), 박마리아처럼 신분상승을 위해 악착을 부린 사람 등, 행위의 동기나 생각은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없다.

2) 전쟁에 협력한 신여성들의 여성주의 - 박인덕과 황신덕

전쟁에 협력한 여성들 중에는 3·1운동에 참가하거나 근우회에 관여한 여성도 있으나, 그들 사상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살피기 위해 다음은 박인덕과 황신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하도록 한다.

신여성 박인덕을 연구한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2013)는 3·1운동, 대한애국부인회 활동, 미국유학시절 독립운동 등을 해온 박인덕의 친일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민족이나 젠더냐’라는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순에 찬 인생 자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조건을 이겨내고 근대교육을 받은 박인덕은 미국 경험을 통해서 여자도 직업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여자를 위한 실업학교 설립을 최종목표로 삼았으나 이혼녀라는 낙인으로 동포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그런 와중에 녹기연맹의 협력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가리켜 이노우에는 식민지 사회의 복잡한 구도(構圖)라고 한다. 박인덕은 녹기연맹 淸和女塾의 자매교인 德和女塾을 세우고 초기의 목표인 현실 생활에 필요한 실력양성교육을 단념하고 현모양처 양성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井上和枝 2013) 덕화여숙은 1944년에 총독부의 명령으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농촌여성계몽이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의 방향과 일치되고 실업교육추진이 라는 신여성의 사회적 사명이 일제의 정책에 흡수되었듯, 이노우에는 박인 덕의 ‘친일’행위는 젠더와 민족이 얹힌 결과라고 해석한다.

황신덕은 일본여자대학교에 유학하던 시절,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이 론적 지도자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藏), 그리고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을 체계화한 아마카와 키쿠에(山川菊栄)와 두터운 교류를 맺었다. 최승만의 중 개로 요시노 사쿠조에게는 학비를 준비하는 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아마카와에게는 정신적인 지도를 받았다. 즉 황신덕은 아마카와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이론을 근우회의 행동강령 작성에 표본으로 삼았으며 인간적으로 도 신뢰가 깊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론은 사회적인 조건이 다른 식민지 조 선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우회의 동지들이 망명하거나 무언의 저항, 혹은 은둔을 할 때 황신덕은 신문기자로서 혹은 교육사업가로서 전쟁을 선양하는 언행을 하게 된다. 그 러나 당국이 여학생을 상대로 한 군사교련 실행 여부를 문의해왔을 때, 김 활란, 송금선, 이숙중, 박인덕, 배상명, 김수선은 찬성을 표명했으나 황신덕 은 “女性까지 出征하여야 할 時期가 왔다면 別問題이겠으나 一般的으로 보 아 女學生들에게 軍事訓練은 賛成하기 어렵습니다. 生理的故障을 防止할 만한 무슨 다른 方途가 있다면 몰라도-”라고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하 지는 않았다.⁸⁾ 한때 신봉한 사회주의 사상과 전시하에서 일제가 추진하려던 황국신민사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응답이다.

또 1940년 5월에 일본의 부인잡지 『婦人公論』에서 ‘조선의 지식부인이 말하는 조선의 현상(朝鮮の知識婦人の語る朝鮮の現状)’이란 제목으로 좌담 을 했을 때, 조선인은 황신덕, 박순천, 방마그렛(황인덕, 황신덕의 언니), 일 본측은 소마 부부(相馬黒光, 相馬愛蔵)와 부인참정권운동을 하던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가 참여했다. 소마 곡고우(相馬黒光)는 그 자리에서 청일전 쟁 시기 조선침략의 첨병 역할을 한 일본 애국부인회 창설자인 오쿠무라 이 오코(奥村五百子)를 찬양하면서 ‘동아의 신질서건설’을 주장하였다. 황신덕 은 경성가정여숙을 설립할 때 옛 대한제국 황실인 이왕가의 물질적인 도움 에 더해 소마가 기부해준 2만엔을 보태 썼다. 좌담회가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좌담이어서인지 황신덕과 박순천은 솔직하게 본심을 토로하고

8) “우리 학교의 여학생 군사교련안.” 『三千里』 1942년 1월호, 105.

피폐된 조선 농촌의 현실을 호소했다.⁹⁾

그러나 주지의 사실이지만 황신덕은 1943년 제자를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의 군수품 공장에 보냈다(장하진 1994).

결과적으로는 그녀들의 ‘언행이 세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친일행위’를 감추고 살아야 했던 해방후의 복잡한 정치 정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 사진들은 황신덕의 역사 왜곡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림 4〉 황신덕의 전쟁협력¹⁰⁾



〈그림 5〉 “우리 황신덕 선생”¹¹⁾



9) “朝鮮の知識婦人の語る朝鮮の現状.” 『婦人公論』 1940년 5월호, 358-365.

“朝鮮婦人の結婚難と家庭生活を語る座談会”(『主婦之友』 1938년 9월호, 190-196)에서는 조선의 일류부인이라는 소개로, 노천명, 이선희, 황신덕, 유각경, 이숙중, 김활란, 서은숙, 허영숙, 장문경이 참석했다. 그중에 일본어를 못하는 유각경과 김활란은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 좌담회에서 취직과 연결되지 않는 여성교육의 어려움과 조혼문제가 논의되었다.

10) 민족문제연구소. 유은호 연구원 제공.

왼쪽 사진은 간판에서도 보이듯이 조선임전보국단(1941년 9월 결성) 앞에서 평의원이었던 황신덕(뒷줄 가운데)이 찍힌 것인데, 나중에 사진의 간판은 황신덕이 교장을 한 경성가정여숙(京城家政女塾)으로 바뀌어 있으며, 황신덕의 왼쪽에 서 있던 박승호도 납북되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삭제되어 있다.

11) 중앙여자중등학교동창회편(1971).

황신덕은 1949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도쿄에서 아마카와 키쿠에와 상봉하고, 1967년에도 박순천과 함께 도쿄에서 아마카와와 다시 만났다. 그만큼 아마카와에 대한 존경심이 두터웠던 것 같으나 황신덕이 전쟁에 협력한 과거에 대한 언급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¹²⁾

또 황신덕은 1967년에 박순천과 같이 서울을 방문한 와타나베 마츠코(渡辺マツ子)를 만났다. 와타나베 마츠코는 황신덕, 박순천과는 일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부의 동기동창생이며 나중에 도쿄 YWCA 총간사가 된 사람이다(中本かほる 2018). 1921년에 도쿄에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한 황신덕에게는 종교적인 입장도 가까운 친지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와타나베가 서울을 방문하여 황신덕, 박순천하고 만나서 찍은 것이다. 촬영지는 국군묘지인데 황신덕이 와타나베를 국군묘지로 안내한 이유가 평화를 주장하기 위해서였는지 반공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총동원체제기에 은둔한 아마카와와는 달리, 침략전쟁에 협력한 와타나베에게는 황신덕의 과거는 불문에 부쳐도 되는 일이었다. 이런 만남이 기초가 되어 나중에 기생관광반대투쟁이 한일의 기독교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림 6〉 박순천(좌), 황신덕(우)¹³⁾



12)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동창회편(1971)에는 요시노 사쿠조에 대한 기술은 있어도 사회 주의자인 아마카와에 대한 기술은 없다.

13) YWCA 사무국장 와타나베 마츠코가 방한訪韓 시 촬영. 山川菊栄記念会提供.

Ⅲ. 총동원 체제기 서민여성들의 생활

1. 금속공출령과 서민여성들

일제는 1938년 5월 国家總動員法을 공포한 후 바로 무기 제작에 필요한 놋그릇들을 헌납하라고 했으며 1941년 이후로는 모든 금속을 공출하게 했다. 이 결정은 제사라는 전통 문화를 부정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남녀 구별 없이 반감을 가지게 될 일이었으나, 무언의 저항, 침묵의 투쟁으로 끝났다. 이 지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 신자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도시에 사는 신여성들과 농촌의 민중여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녹기연맹 부인부가 전쟁 찬양을 목적으로 발행한 『新女性』(1942년 8월 창간, 일본어본)에도 기사의 행간에 조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청에서 서울의 민간집에 금속 공출을 독려하러 왔다든지, 조선여성이 여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자기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다든지, 총독부가 조선 여자들에게 비행기 증산의 일원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든지(1944년 3월호), 잡지사의 의도에 반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2. 여성교육의 실태

현영섭은 조선어도 버리고 완전한 내선일체를 주장한 인물이지만, 그가 쓴 글도 일제가 추진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34년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7교, 학생수는 2,057명, 사립은 10교, 학생수는 3,446명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조선의 여성인구는 10,097,764명인데, 연령별 통계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인구로 비율을 낸다면 약 1,835명 중 1명이 여자 중등교육을 받은 셈이 된다. 그 당시 조선에 거주한 일본 여성이 273,420명인데, 여학생 수가 조선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므로 일본 여성은 약 50명 중 1명이 중등교육을 받은 셈이 된다.

그리고 1936년 淑明여고보를 졸업한 104명 중 취직한 사람은 6명, 상급 학교 입학이 42명, 가정에 남은 사람이 56명이며, 1935년 京畿여고보 졸업

자 98명 중 가정에 남은 사람은 76명이다.¹⁴⁾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견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1930년대말부터 여자 중등교육기관을 33교 증설하지만, 모두 권력의 통제 받는 공립이었다. 초등교육을 살펴보면 1942년 취학률이 30% 가량이었으나, 농촌만 본다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조선여성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도 교육기관의 숫자가 적고 일반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박인덕의 전망과는 달리 교육이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취직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일본 남성의 2분의 1, 일본 여성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기아임금(飢餓賃金)밖에 못 받았다. 누가 수지에 맞지 않는 학교교육을 시키려고 하겠는가. 처음에 박인덕은 여성의 실업교육을 목표로 삼았지만, 덕화여숙에서 현모양처양성, 군국여성양성교육으로 교육이념을 바꾸게 된 이유를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과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조선의 모든 면에 반드시 神社·神祠를 설치할 방침을 세웠는데, 이와 비교하면 여자 중등교육기관의 33교라는 숫자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 했던 하나의 목적은 일본어 습득이었으며 애국반을 통해서 일본어 보급을 추진했다. 더불어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조선어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시책은 조선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고, 강요된 일본어 습득이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부담은 과중했다. 물론 일본어 습득은 양날의 칼로서 일제에 대한 비판의 눈을 키울 무기가 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1941년 말에도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이 전 여성의 92%였다는 사실에서 일본어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된다(樋口雄一 2005, 55).¹⁵⁾

또 여성들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복장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미 1938년 ‘친일파’ 여성들이 전쟁 선양 강연 때 국방색 개량한복을 입었다고 하나, 일반 여성들은 1941년부터 애국반을 통해 몸매 착용이 권장되었다. 그러나 몸

14) “朝鮮新女性界展望.”(玄永燮 1939).

15) 사공 보(1923~2013)는 경북의 어느 농촌 출신 여성인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제의 교육을 경계하는 어른들의 반대로 학교교육을 못 받았고 일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빼는 조선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안태운 2007).¹⁶⁾

3. 피폐되는 농촌과 저항하는 낮은 목소리

총독부의 쌀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은 자연 재해에 취약한 농업 체질을 만들었다.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거듭되었는데, 이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소작, 자소작, 농업노동자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농민 간의 경제격차를 확대했으며, 1938년에는 전농민의 61%가 영세농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樋口雄一 2002).

내선일체에 기대를 걸었던 인정식조차 ‘기와집은 양철집으로 양철집은 초가집으로 바뀌고 그 초가집에서 도시에서 온 奸商에 의해 팔려가는 딸들이 출현하는 것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농촌 경제가 붕괴하는 현실을 고발한다(印貞植 1940, 76). 인정식이 말하는 피폐된 농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출신지와 거의 겹친다.

조선 인구는 1912년부터 1935년 사이에 1.5배가 늘었는데, 도시에 과잉인구를 흡수할 만한 산업이 없어 그 인구가 농촌 내부에 축적된 것도 농민의 상황을 악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악정(惡政)에 대한 조선 민중의 반발은 經濟統制諸法令 위반이나 유언비어 확대로 나타났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과 물자, 자금 수탈을 위해 통제경제정책을 세우고 물가통제, 배급통제, 경제단속기관의 확충을 실행했으며 경제통제법령을 발포했다. 우선 중일전쟁 직전 총독부는 군수물자에 대한 물가를 통제했고, ‘폭리단속령’(‘暴利ヲ目的トスル売買ノ取締リニ関スル件.’ 1937년 5월, 府令 제60호)을 효시로 시행법령을 증가시켰다.

1938년 11월 발족한 경제경찰¹⁷⁾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집행권을 행사했는데, 비밀거래와 매점은 계속되었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심불안이 증가하였다. 수입도 군수물자를 장려하고 민수물자를 제한하였으며, 중요물

16) 송쾌한(1928~)의 증언(2023년 7월 15일 인터뷰)에 의하면, 경북의 집성촌인 고향에서는 몸빼를 입은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고, 1943년 여학교에 다니기 위해 간 일 본에서 일본여성들이 몸빼 입은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17) 일본 내지에서는 1938년 7월에 발족.

자의 공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배급통제를 추진하고 태평양전쟁 후에는 생필품에 대한 배급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물자통제령’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을 연달아 공포했다(松田利彦 2022; 송규진 2011).

통제경제법령 중 조선에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이 폭리단속령이었는데, 위반 시 처벌이 일본 내지보다 무겁거나 확대 적용되었다. 1940년 이후 엄벌주의로 검거, 기소건수가 급증하였고, 징역형을 받은 자는 일본 내지가 3.85%인데 비해 조선에서는 13.9%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는 정비되지 않은 배급기구, 물가 등귀와 인플레이션, 배급에 있어서의 민족차별 등 조선에 특유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경제법으로 징계 받은 내용을 보면 식량관계의 가격통제법령 위반자가 가장 많은데, 특히 노점상·행상인이 많았다. 암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944년 6월 함경북도 경찰부에 같은 죄상으로 검거된 932명 가운데에는 여성 행상이 대부분이었다. 검거된 조선인들의 경제경찰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며 반일적이었다고 한다(松田利彦 2022).¹⁸⁾

일본에서 생활고와 민족차별에 시달리던 재일조선인들도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검거수는 일본인의 2배가 되었다(司法省刑事局 1944). 이 숫자는 일제에 대한 조선 민중의 적극적인 투쟁은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저항하는 ‘낮은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조선인들의 불만, 불신은 불온낙서, 불온문서,¹⁹⁾ 유언비어로 나타났다. 21살 직공 김원성은 근무지인 용산공작회사의 입구 문에 백목으로 ‘우리들 조선동포들이 좀더 각성하라’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구류 29일의 처벌을 받았다.²⁰⁾

유언비어에 대한 경계는 중일전쟁 발발 후 한층 강화되었는데, 1937년 7월 14일 경무국은 출판물 단속과 함께 치안확보의 주안점으로 각 도지사에게 통달하였다. 『동아일보』(1937년 8월 8일)가 ‘말을 삼가라 자칫하면 금고 3년’이란 사설을 실은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중앙정보위원회

18) 『三千里』 1942년 1월호에서도 “最近の半島の經濟事犯”이란 글에서 숫자와 실례를 들고 있는데, 1940년 조선인 경제사범이 2,167건인데 비해 1941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15,934건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19) “3장 민중 저항의 양상과 성격”(변은진 2013).

20) “不穩落書者檢挙取調ニ関スル件.” 『思想に関する情報綴四 京高特秘第2510号』. 京城地方検事局(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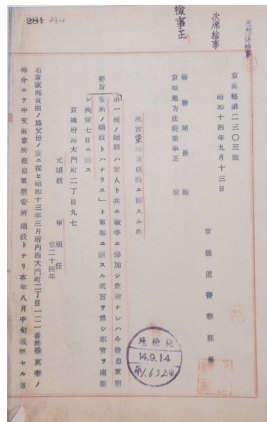
는 같은 해 8월 12일 기생, 여급들이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된다고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일반 접객업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다.²¹⁾

평안남도 진남포에서는 간이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낸 돈이 국방자금으로 쓰여 가입자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유언 때문에 도시 주민들이 불안감에 안달하였다.²²⁾

일제가 중국 남경을 점령한 후인 1939년 9월, 서울 서대문에 사는 24세 여성 신순임은 조선 중개업자에게 속아 남경 소재의 皇軍慰安所로 가게 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뒤 자기를 속인 사람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유언비어죄로 종로경찰서에서 구속당하고 말았다.²³⁾ 이것은 피해자가 이중으로 억울하게 된 사례인데,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소문이 퍼져 여러 유언비어를 재생산했던 것이다. 세간에서 ‘정신대’, ‘처녀 공출’, ‘보국대’란 말이 퍼지자 제국에 의한 ‘대낮의 폭력’을 경계한 가부장들이 서둘러 딸을 조혼시키는 악순환을 조성했다.

〈그림 7〉 신순임의 유언비어 처벌 공문서

(京高秘第2303号, “流言蜚語者処罰二関スル件”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에 관한 사건)



21) 『동아일보』 1937년 8월 14일.

22) “도회지 부근에서 유언비어 성행.” 『동아일보』 1937년 9월 12일.

23) “流言蜚語者処罰ニ関スル件.” <要旨 第一線ノ娼妓ハ軍人ト共ニ戦争ニ参加シ危険ナレバ今後皇軍慰安所ノ娼妓トハナラズ> 『思想に関する情報綴四 京高秘第2303号』. 京城地方検事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

일본 강담(講談)의 ‘時は今か(토키와 이마카/ 때는 지금이나)’란 대사가 조선인에게 ‘토끼는 이마로’로 들렸다거나, 관부(関釜)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상륙한 조선인의 귀에 ‘시모노세키’가 ‘이놈 새끼’로 들렸다거나, 또 기차가 오사카 근처 神戸의 산노미야(三ノ宮)까지 오자, ‘(너는)상놈이야’라고 들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일화는 조선 민중들이 얼마나 일본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가를 웅변한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풍자한 아리랑 노래가 곳곳에서 불렸듯이 일제의 지배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민중의 낮은 목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전쟁을 선양한 신여성들과 일제의 민낯을 꿰뚫어보고 그 국가폭력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과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일일이 매겨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가족사 안에, 우리의 먼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다.

제국 권력이 부정하고 감추려던 민중의 본심을 증명하는 것은 ‘민족해방’이 되자마자 신사가 가장 먼저 파괴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面에 반드시 神社・神祠를 설치한다는 方針은 결과적으로 49%밖에 실현되지 않았는데, 신사 파괴는 황민화에 대해 면중복배해 온 조선 민중들의 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IV. 나가며

전쟁과 식민지통치에 시달리던 민중여성들은 개인의 얼굴이 가려진 채 대부분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속에 묻혀 있었지만, 간혹 개인의 단편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중여성들 대부분이 보고 겪은 일제와, 행위주체성으로 친일 행위를 한 지식인 여성들의 일제는, 그 인식에서 극과 극이었고 대조적이었다.

지식인 여성이라 해도 그들의 사상이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통된 핵심 사상을 찾아가면 근대가족이데올로기에 다다르게 된다. 섹슈얼리티에서 반란을 일으킨 나혜석도 근대가족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사회주의를 신봉한 황신덕도 마찬가지였다.

제국의 기축이 되는 것은 군대이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명한 국민

을 만드는 교육이 또 하나의 기축이 되지만, 그런 기축을 뒷받침하는 장이 바로 근대가족이다. 징병에 필수인 근대가족은 부부가 단위가 되는 핵가족으로, 조선에서 실시된 창씨개명도 징병을 전제로 하는 근대가족을 개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근대 가족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남자가 지배하는 영역이었으나, 근대적인 가정을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주부, 즉 근대적인 가정학을 실천하는 여성은 남자의 매개 없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가정책, 예를 들어 소비경제나 가정교육의 담당자로서 절약운동, 경제긴축운동, 총동원 교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의 서열이 존재하고 여전히 여성은 민법상 무능력자이지만, 가정 내 역할의 책임 주체가 되고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직접 국가와 연결되는 국민이 되었다(小山静子 1999, 261-265).

주로 기독교계 여성들이 추진해온 근대가정학의 계몽은 일제가 추진하려던 여성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이었다. 즉 1920년대 여성계몽을 주요 과제로 한 여성운동은 일제의 여성정책과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다. 여성계몽 자체는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의 실천이 되지 못했다.

근대가족이데올로기의 걸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중산층 여성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존재하는 것은 공·사창제였다. 이러한 근대가족이데올로기의 제국적인 본질을 꿰뚫어본 여성들이 1920년대 조선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원희(朴元熙)는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이란 글에서²⁴⁾ 여성인구의 7%(1924년 당시)가 받고 있는 여성교육의 취지는 현모양처주의로서 여자를 도구화, 상품화하는 것이며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을 무시하고 조선인에 맞지 않은 교수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교육보다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1927년에 결성된 근우회의 행동강령에는 관념적인 한계는 있어도 공창제 폐지란 항목이 있었다.

박원희 같은 여성, 근우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분명히 조선에 존재하였으나 제국의 폭력은 그런 사상의 소유자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아쉽게도 박원희는 1928년 1월에 타계했는데, 일본의 여성운동은 겪지 않은 식민지의 인재 상실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그러한 혁신적인 사상이 단절된 후에 여성교육의 장이 조금씩 증가했으나

24) 『동아일보』 1927년 7월 8일.

제국의 도구라는 비판적인 시각은 희미해지고, 여성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그였던 현영섭은 김활란이 『조선의 농촌개조』라는 영어로 쓴 저서가 있어도 조선에 대한 인식이 안이(安易)하다고 평가했다.²⁵⁾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에는 물론 현영섭에게 내재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을지도 모르나 같은 글에서 현영섭은 박원희를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丁玲보다 못하지만 박화성을 실력 있는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는 김활란을 연상하게 하는 지도자가 농촌현실을 모른다고 비판적으로 쓴 부분도 나온다.

친일 행위를 한 여성들 대부분이 교육계 인사들인데, 식민주의교육 자체가 싼 노동력을 양성하고 여성들 사이에 만들어진 격차 위에서 효율적으로 착취하는 기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성지식인들이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다. 식민주의 자체가 젠더차별을 필수로 하는 것이며 조선여성들이 교육에 있어서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본질이었다. 교육은 민족, 남녀, 녀녀간에 근대적인 계급을 만드는 장치인데, 1930년대 이후 조선 여성계에 남은 지도자들은 여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버렸다. 여성교육을 실현하려면 전쟁이라는 큰 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본말전도가 된 것이다. 김활란의 조카인 김정옥이 이모를 옹호하며 전쟁협력이 아니라 여성교육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도²⁶⁾ 근대교육과 근대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교육 자체가 전쟁을 위한 것이며 일제에 협력하는 인재 양성의 도구였다는 인식을 하기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놓인 현실이 조선 민중여성들이 겪고 있던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다. 지식인 여성들이 강연이나 방송에서 아무리 전쟁협력을 외쳐도 민중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지식인 여성들과 민중여성들은 분열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20년대에 맹아로서 존재했던 근대가족이데올로기 비판, 즉 극소수의 여성만이 실현할 수 있는 근대가족과 가난한 여성들이 흡수되는 공창제를 표리일체로 보는 시각은 점점 망각되어 버렸다. 해방 후에 친일행위를 한 여성들은 새로운 나랏님(미군정)의 통치 아래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

25) “朝鮮新女性界展望.”(玄永燮 1939).

26) “「천성활란(天城活蘭)」 시대.”(김정옥 1977).

다. 고황경은 미군정 하에서 부녀국을 창설하고, 1946~48년까지 초대 보건 후생부 부녀 국장의 자리에 앉았다. 부녀국의 설치 이념하에서 ‘매춘여성’은 사회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해온 지식인 여성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의 친일행위는 지워처럼 ‘용케’ 피해가면서,²⁷⁾ 해방 후에도 근대가족이데올로기로 여성계의 주류가 되고 민주적인 가족법 개정운동을 내세워 진보적인 여성이라는 표상을 얻었다.

친일파 지식인 여성들의 과거 행위를 이항 대립적으로 보고 민족주의적인 단죄로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된 사상, 즉 식민지 가족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주의’ 여성교육의 이념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 황신덕과 와타나베 마츠코와의 기독교적인 유대관계가 기생관광 반대운동에서 한일여성들의 연대에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도 앞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적인 고뇌가 여성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환이 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27) 韓徹永(1953)에는 박순천, 모윤숙, 황신덕, 김활란, 임영신, 박은혜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8〉 잡지 『新女性』류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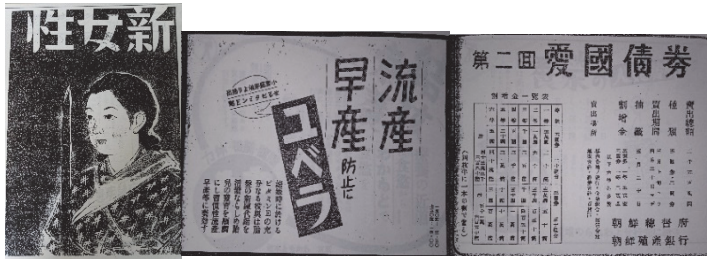
① 1923



② 1929



③ 1944년 12월호



④ 1950년 8월호



송연옥(宋連玉)은 아오야마가쿠인대학(青山学院大学) 명예교수이다. 현재 도쿄 소재 문화센터·아리랑(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의 관장을 맡고 있다. 대표저서: “脱帝国のフェミニズムを求めて”(有志舎、2009年)、“植民地‘公娼制’に帝国の性政治をみる”(有志舎、2023年)

28) 잡지명은 같아도 발행처지는 현격히 다르다. ①1920년대의 조선여성들이 발간한 『신여성』, ②근우회의 기관지 『근우』, ③녹기연맹이 발행한 『신여성』과 광고, ④일본에서 1950년에 발행된 『신여성』. 표지의 여성들의 표정에서도 잡지의 취지를 읽어낼 수 있다.

〈연표〉

年号	朝鮮	日本
1932		3월 ‘滿州国’建国宣言
1933	2월 綠旗聯盟結成 3월 農村振興運動	3월 日本、國際連盟脫退
1936	宇垣、總督府内に 婦人問題研究会준비 8월 南次郎、「内鮮一体」訓示	
1937	2월 朝鮮婦人問題研究会 5월 폭리단속령 8월 愛国金釵會 9월 (~38년 9월) 惠山檢挙事件 11월 국방부인회 靖성본부 결성식	7월 中日戦争
1938	2월 陸軍志願兵制度 6월 朝鮮女基青의 일본基青에의 가맹 7월 国民精神總動員体制朝鮮連盟 陸軍特別志願兵制度 11월 경제경찰창설	5월 國家總動員法公布 7월 경제경찰창설 8월 산업보국연맹
1939	1월 国民精神總動員京城聯盟 愛国班(10戸単位) 9월 조선국방부인회(본부 함경북도나남시) 10월 가격등 통제령, 地代家賃통제령 國民徵用令实施(強制動員) 11월 綠旗聯盟 “今日の朝鮮問題講座” 全6卷간행 “모던 日本・朝鮮版”에 御手洗辰雄「内鮮一体論」이 게재됨	2월 國家精神總動員強化方策을 決定 4월 米穀配給統制法公布
1940	2월 創氏改名 10월 國民總力朝鮮連盟(代表; 崔麟) ⇒大政翼賛會 8월 東亞日報・朝鮮日報廢刊	
1941	8월 金屬回收(供出)令	9월 金屬供出令 12월 陸軍: 마레半島上陸 海軍: 真珠灣攻撃、太平洋戦争
1942	3월 『三千里』→『大東亞』改名 8월 綠旗連盟 『新女性』發刊(~日本敗戰)	前半期: 大東亞共榮圈이름하에 태평양 전역에 세력 확대 6월 일본 해군, 미드웨이해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 미군의 猛反擊 시작
1943	7월 海軍特別志願兵令公布	
1944	4월 徵兵制实施	여름에 사이판 섬 함락 일제 制海權、制空權 상실
1945	8월 7連軍、朝鮮駐留日本軍을 攻撃	日本 각지에 미군의 공습 6월 沖繩陷落 8월 広島・長崎原爆投下 日本、敗戰

참고문헌

<한국어>

- 김정옥. 1977. 『이모님金活蘭』. 서울: 正宇社.
- 방기중. 2005.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해안.
- 변은진. 2013.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서울: 선인.
- 송규진. 2011. “일제말(1937-1945)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42호, 141-175.
- _____. 2012.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 『매일신보』의 물자통제경제정책 위반사례 기사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5(1), 101-129.
- 안태윤. 2004. “전시체제와 가정성 가정생활과 주부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937-45).” 『여성과 역사』 창간호, 65-104.
- _____. 2007. “일제말 전시체제가 여성에 대한 복장통제 -몸빼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 『사회와 역사』 제74집, 5-33.
- 이승엽. 1998. “『新女性』 - 식민지시대말기 여성의 ‘皇民化’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호, 507-519.
- 장하진. 1994.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친일파99인 2』. 서울: 돌베개.
-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동창회편. 1971. 『우리 黃信德先生』. 서울: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동창회.

<일본어>

- 樋口雄一. 1994. “太平洋戦争下の女性動員-愛国班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2輯.
- _____. 2002. “植民地朝鮮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学新報』 109号.
- _____. 2005. “総力戦体制と植民地.” 『植民地と戦争責任』. 東京: 吉川弘文館.
- _____. 2013. “戦時末期朝鮮邑面の機能と朝鮮人民衆との乖離について.” 『地域社会から見る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台湾・満洲』. 京都: 思文閣出版.
- 小山静子. 1999.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 東京: 勁草書房.
- 松田利彦. 2002. “総力戦期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経済統制法令の整備と経済<犯

- 罪>.”『世界の日本研究—日本統治下の朝鮮；研究の現状と課題』. 京都: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河かおる. 2003. “朝鮮金融組合婦人会について.” 『日韓関係史論集』. 東京: 新幹社.
- 洪宗郁. 2011. 『戦時期朝鮮の転向者たち—帝国・植民地の統合と亀裂』. 東京: 有志舎.
- 井上和枝. 2013. “新女性朴仁徳における「近代」・「民族」・「ジェンダー」・「親日」.” 『植民地朝鮮の新女性』. 東京: 明石書店.
- 藤永壮. 2013. “戦時期朝鮮における「慰安婦」動員の「流言」「造言」をめぐる.” 『地域社会から見る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台湾・満洲』. 京都: 思文閣出版.
- 崔眞善. 2013. “植民地期朝鮮の「国語普及運動」の展開と朝鮮女性の対応.” 『地域社会から見る帝国日本と植民地—朝鮮・台湾・満洲』. 京都: 思文閣出版.
- 中本かほる. 2018. “YWCAによる女子青年教育の研究.” Toyo University Repository for Academic Resources.
- 玄永燮. 1939. 『新生朝鮮の出発』. 京城: 大阪屋号書店.
- 印貞植. 1940. 『朝鮮の農業地帯』. 東京: 生活社.
- 緑旗聯盟編. 1940. 『今日の朝鮮問題講座』4号. 京城: 緑旗聯盟.
- 韓徹永. 1953. 『韓国を動かす人達』. 横須賀: 鶏林出版社 (坪江仙二訳, 非売品)

<1차 자료>

- 『東亜日報』1927년 7월 8일, 1937년 8월 8일, 1937년 8월 14일.
- 『京城日報』1937년 8월 21일.
- 京城地方検事局. 『思想に関する情報綴四 京高祕第』. 2303号, 2510号.(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京城地方法院検事局. “時局講演会集会取締状況報告.” 『思想に関する情報9 京城鍾路警察第』. 5813의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主婦之友社. “朝鮮婦人の結婚難と家庭生活を語る座談会.” 『主婦之友』. 1938년 9월호.
- 婦人公論社. “朝鮮の知識婦人の語る朝鮮の現状.” 『婦人公論』. 1940년 5월호.
- 国民精神総動員朝鮮連盟. 『総動員』. 京城: 同連盟. 1939-1942年.

三千里社. 『三千里』. 1942년 1월호.

司法省刑事局. 1944. “調査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の經濟犯罪狀況.” 『經濟月報』.
1944年 8月.

民族政經研究所 編. 1948. “豫想登場人物 親日派 群像(上), 二.自進協力者と脅威에
依한 被動協力者, 2.教育界・宗教界關係人物.” 『親日派群像』. (국사편찬위
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bstract

The Lives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cific War: Divisions and Conflicts

Song, Youn-ok*

During the Pacific War, Korean male intellectuals under the wartime total mobilization system converted and collaborated with Japan's war of aggression, interpreting *Naisen Ittai* as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their status and escape from national discrimination. However, female intellectuals supported the war based on different logic. Believing that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trength by Japan would realize the modern family, they started from the enlightenment of modern home economics and strived to become wise homemakers and responsible family heads, aligning with the nation's and the era's demands, to exhibit agency as citizens (imperial subjects). Activities of intellectual women advocating for lifestyle improvements, frugality, and economic independence during the war were carried out in pro-Japanese women's organizations overseen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Chōsen, but contrary to the exaggerated propaganda of the Governor-General, they did not significantly mobilize or achieve success. This was disconnected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Korean women. While individual intellectual women might be visible with their names and careers, the majority of common women remained obscured within their families or clans, sharing the same interests. Prior to improvement or savings, their lives were threatened in the colonial reality, leading to a significant divergence in the war perceptions of common and intellectual women. This can be seen as the beginning of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common and intellectual women in terms of gender and nationalism.

Key words: Modern Family Ideology, Collaboration in Aggressive War and Agency,
Illusion of Modern Women's Education, National/Gender/ Class Discrepancy

논문투고일: 2023. 10. 29.

논문심사일: 2023. 11. 14.

게재확정일: 2023. 11. 23.

* Emeritus Professor, Aoyama Gakuin University. younoksong@gmail.com